

자주 · 민주 · 통일의 길이

주위의 압력으로 험난해도

적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총여학생회는

여학우의 요구와
민족의 요구에 부응하여

학우와 민족과 조국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며

회의없는 모습으로, 자주적인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학우와 함께하는 우리의 벗 “총여학생회”

- ▶ 다시 뛰는 여학생회
- ▶ 여성으로 산다는 건!

통일을 향한 힘찬 몸짓

- ▶ 우리는 통일세대
- ▶ 통일의 걸림돌

청년의 등대지기 “한총련”

- ▶ 언니, 한총련이 뭐예요?
- ▶ 대의원대회 우리 모두 함께 해요.

총여학생회장 정후보

장혜경

(문과대 국사학과)



1998

문과대 국사학과 입학
근현대사연구학회 '개벽' 입회
11기 통일 선봉대 대원

1999

국사과 선전부장
12기 통일 선봉대 대원

2000

총여학생회 부회장

2001

총여학생회 정책국장
6.15 공동선언 실천운동본부 선전 주체
자주적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장 임후보

(야간강좌 통상 및 경제학부) 이지혜

1999

야간강좌 통상 및 경제학부 입학
7기 한총련 출범식 새내기 문예단

2000

야간강좌 학생회 선전부장
13기 통일 선봉대 대원

2001

총여학생회 선전부장
6.15 공동선언 실천운동본부 실천단
자주적 총여학생회 부총여학생회장 입후보



우리의 벗 종여학생회



3년을 학교에 다니면서 이렇게 학우들과 가까이 얘기해보긴 처음입니다.

다가섬을 두려워하는 학우들은 없었습니다.

수줍어 미소짓던 새내기들을 만나면 저도 수줍어 집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털어 놓는 학우들을 만나면,

가슴이 떨려움을 느낍니다.

마구 꾸짖으시던 학우들을 만나면,

몸들바를 몰라 얼굴이 붉어집니다.

‘민들레 꽃처럼 살아야한다’

붉게 물든 학교의 이곳 저곳을 걸으면서, 학우들을 만나면서

계속 생각나던 노래의 한구절입니다.

정말 민들레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하지도, 결코 빛나지 않을지라도

들풀가 어울어져 거침없이 피어나는 민들레처럼.

모질고 모진 이땅의 무수한 발길에 짓밟히는데도,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야겠습니다.

장혜경 · 이지혜가 준비하는 2002년 17대 자주적 종여학생회는

민들레처럼!!

9천 여학우들의 든든한 벗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가을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교정을 걷고 있자면
여러생각이 나곤 합니다.

'벌써 직장 구할 때가 되었나' 라는 고민이 들며 무심히 도서관을 봅니다.

지난 기간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학우가 더 편안히 다닐 수 있을까?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까?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단지 사색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저런 고민이 많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뛰어 다니며 여학우를 찾아뵙겠습니다.

총여학생회가 필요한 곳이라면 꼭 가겠습니다.

벌써 겨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침저녁은 춥습니다.

추운 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더 좋은 총여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힘모아 뜻모아

기본에 충실하는 우리의 벗 17대 자주적 총여학생회 건설을 위한

장혜경 · 이지혜

여학우와 함께하는 우리의 벗 “총여학생회”

다시 뛰는 여학생회

- (1) 좋은 말
- (2) 공약 광고, 하나

여성으로 산다는 건!

- (1) 성노예 전범 국제 법정
- (2) 공약 광고, 둘
- (3) 꺼리꺼리 눈물꺼리
- (4) 나만의 글



자주적 총여학생회의

중심에는 여학우가 있습니다.

자주적 총여학생회는

여학우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장입니다.

자주적 총여학생회실은

여러분이 계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자주적 총여학생회는

주체적 여성을 만들어 가는 장입니다.

자주적 총여학생회는

사회의 모순을 극복해가기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좋은 말

행사위주의 사업,
경직된 모습.
학생회의 현 주소
아닌가요?

학생회 일꾼들이 열심히 사업을 하고 생각을 하여도 한계는 언제나 여실히 드러나곤 하였습니다. 장기적 안목없이 일회성에 그친 사업들, 꾸준한 후속작업의 결여, 일상적으로의 고민과 사업부족...

기존 학생회 조직 체계는 행사의 준비? 작업과정을 매우 세분화시켜 주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전체흐름을 꿰뚫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키 위해 "미군범죄감시단, 과여발특위, 여성특별위원회"으로 사업성격을 기준으로 조직을 개편할 것입니다.

좋은 말

여전히 대동제 주막촌에선
음식요리를
여학생이 하는걸요???

여학우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었던 공대의 경우도 근래에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부차적인 일에 여학우가 대동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여학우들의 참여기대치는 높아가고 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 해줄 과내의 기구는 너무나 부실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 여학우의 큰 기침이 필요할 때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과여학생부가 우선 설치 되어져야한다.

현재 과여학생부가 존재하는 곳은 20%로도 채 되지 않는다. 과여학생부가 있는 과도 활성화되지 못하는가 하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여학생회의 주도적 노력으로 반드시 과여학생부 및 소모임이 여학우의 더 나은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좋은 말 3

이렇게 외쳐보구 싶어요,
난 당당해!

평범함의 대명사가 '바로 나'라는 지루한 생각을 하던 한 여학우가 어느 날부터 인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주변 많은 사람들의 화제 주인공이 되버렸고, 이 전에도 입었던 똑같은 옷이 이젠 그들의 관심이 되어버렸다. 동창남자친구를 우연히 만나기라도 하면 "역시... 그럼 그렇지"라는 말이 들려온다. 여성이 성폭행?추행을 당하여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막연하다. 성폭행 당한 여성을 피해 의식에 묶어 가두려하며, 오히려 가해자에게는 어떠한 제재도 가해지지 않는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위에서 비일비재하다. 2001년 지속적으로 성폭력관련 학칙제정이 논의되었으며 학칙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꾸준한 후속 작업이 요구된다.

좋은 말 4

이젠 기지개를 펴고
학생회실만이 아닌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책상이 있고 사무기가 놓여있는, 표지판이 달려있는 곳만이 여학생회는 아니다. 여학우가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여학생회실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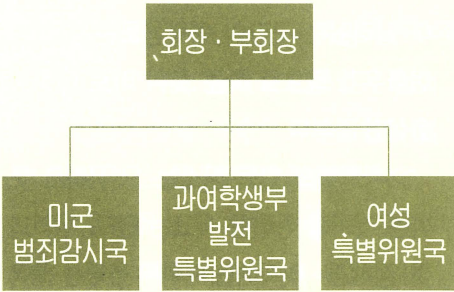
"여학생회의 활동 장소는 ○○"라고 못박는 것처럼 위험한 사고는 없다. 우리의 벗! 장혜경·이지혜는 여학우가 있는 곳이 여학생회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총여학생회가 육지와 동떨어진 외딴섬이라구요?
 학우들께 언제나 먼저 다가서겠습니다.
 육지로 밀려오는 거센 파도를 앞에서 온몸으로 막겠습니다.

총여학생회 조직체계 전향



총여학생회가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사업의 꾸준한 진행이 요구됩니다. 통일 을 향한 몸짓으로 주한 미군 철거를 위 한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에 미군범죄감시국을 설치하겠습니다. 여학우와 함께 살겠다는 의지로 과 여학생부발전특별위원국을, 성폭력 규 제 학칙의 실질 유용을 위해 여성특별 위원국을 세우겠습니다.

과⇨단체⇨총여학생회로 이어지는 연대성 강화

뿌리 없는 나무는 설 수 없고, 물 없인 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여학우와 함께할때 만이 여학생회는 존재 할 수 있습니다. 과여학생부 · 소모임을 반드시 설치하여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간담회를 통해 소모임 · 과여학생부 · 단체 여학생회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을 한해 성폭력 규제 학칙제정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현재 제정 단계입니다. 반드시 제정하여 교내 성문제를 완전 해결하겠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닌 실효성을 바탕에 둔 성폭력 규제 학칙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켜 보아 주십시오. 여학우와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멋진 방법 멋진 우리

더이상 학생회에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밖으로 밖으로 여학우를 찾아가겠습니다. 반드시 이동하는 총여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당에서 “함보슈”

생동감있는 영화는 극장에서만 볼 수 있다? 아닙니다. 총여학생회의 “함 보슈”로 오세요. 여학우의 의견이 반영된 영화 · 세상을 꼬집을 수 있는 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하겠습니다.



달팽이의 꿈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나의 청춘을...



삼켜버린...



당신들로부터...



위안부 할머니들께...
힘모아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또 똥바탕 들어!!





지금 우리는 생각한다.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를...

할머니의 휘갈겨져 만신창이 된 육신을 보았고, 아직도 밤을 무서워하는 찢겨진 영혼을 보았다. 눈물로 한 많은 생을 마감하시는 할머니를 보내며 오염하시는 할머니들을 우리는 보았다. 지금 우리는 알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한 번도 피우지 못했던 꽃봉오리가 꺾여져 가고 있음을...

할머니께선 단 한줄기 빛으로라도 꽃을 피우고자 했으나 이루시지 못하였다. 할머니께선 일본정부의 정식 사과라는 단 하나의 빗줄기를 그토록 바랬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너무나 큰 바램이었을까? 자신의 청춘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 한을 품고 지금껏 살아오신 이 할머니들께서 가장 바라는 것은 일본정부의 진지한 사죄와 자신들의 명예회복이다.

과거 군국주의 일본군 '위안부'는 물론이러니와 전쟁의 연장선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성노예가 존재하고 있다. 전쟁은 술한 남자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홀몸이 되어 생활능력을 잃은 부녀자들과 피난민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미군부대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기지촌은 그동안 한국의 군부와 미국과의 유착으로 미국군인들을 위한 군대 창녀촌이 생기게 되었고 이 또한 불법적으로 묵인, 관할 운영되어왔다.



외세에 짓밟혔던 20세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국주의의 그 끔찍한 시나리오

우리의 눈과 발을 기지촌으로

기지촌 활동이란 말 그대로 기지촌 지역에서 벌이는 활동입니다.

식민지 조국속에서 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한 계층에 있는 여성들이 미제국주의에 의해 짓밟히는 현실, 즉 성·계급·민족모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총체적으로 인식 할 수 있는 장입니다. 통일의 최대걸림돌인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며, 여성의 예측되는 삶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정신대 할머니분들의 강연회·후원회를 통하여 학우들과의 만남을 추진하겠습니다. 할머니께서 계시는 '만남의 집'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꺼리꺼리 눈물꺼리

얼마전 컴퓨터통신에 올라온 것 결혼한 여성의 글에는 단 한 번도 본적이 없는 남편 할아버지의 제삿날이 친정아버지의 생신과 겹치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살아 생전에 생신날 찾아뵙 수 없다는 한탄이 적혀 있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한번도 보지 못한, 돌아가신 배우자의 할아버지보다는 살아 계신 내 아버지가 소중하지 않은가? 그러나 결혼한 여성은 순식간에 남편집안의 하부구조로 편입되어 남편집안의 행사에 누구보다도 더 큰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물론 따로 호적을 독립한 다른 아들의 아내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만의 글

2001.○월 ○일

아양, 또 학원에 늦을 뻔했다. 늦게 가는 건 정말 싫은데... 외국샘이 영어로 살라살라 물어보는데, 영 긴장되서 말이 안나온단 말야. 난 뭘하지? 모르겠다. 내꿈이 뭐였는지 생각하면 기운만 빠진다. 역시 안하는 것이 내가 오래 사는 길인 것 같다. 잠온다. 지금은 전공 수업 시간이다. 연습장에 이렇게 쓰고 있지만 교수님이 여간 신경쓰이는 것이 아니다. 하긴 뭐 나만 이러나? 벌써 몇 명은 조는 걸 뭐! 다만 돈 벌고 있을 부모님 생각하면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뿐이다. 어차피 학교 공부가 직장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학점이나 채우고 학교나 면하면 되지 뭐.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서 공무원시험 정보나 뒤적거릴까? 휴~ 그냥 PC방 갈란다. 웬지 집에서 눈치주는 것 같다. 직장은 구하겠느냐고T.T 이게 모두 엄마 친구 딸 땀이다. 회사 비서로 취직했다는데... 으후... 직장 구한 건 부럽지만 그언니도 불쌍하단 생각된다. 편입시험쳐서 겨우 좋은 대학교 가더니만, 결국 전문직도 아니잖아. 그 언니 전문 디자이너 된다고 그렇게 공부하더니만, 결국 꿈을 접고 현실에 안주하기로 했나보다. 나두 공무원이나 될까? 내 친구에게 말했더니 쉽게 말하지 말란다. 맞는 말이다. 나두 한심하다. 쉬는 시간이다. 졸음이 없어졌다. 아, 할게 많다. 토익도 하고, 컴퓨터 자격증 참 어학연수도 다녀와야 명함이라도 내민다는데... 취업구멍은 왜 그리 작은지. 뭐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다. 어렵게 직장 구하면 뭐해? 결혼해서 아이 생겨도 맡길데도 없는걸. 북한은 여성에 관한 복지가 잘 되어있다는데, 빨리 통일되면 좋겠다. 그럼 결혼해서도 사회생활 하는 데 아무런 부담이 없잖아. 아!생각해보니 남남북녀라는데, 통일되면 결혼도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이런 나도 자본주의에 물들었나 보다. 여자를 외모로 판단하려들다니. 통일되면 결혼 걱정 안해도 되겠는 걸 ㅋㅋㅋ. 남한이야 넘넘 많이 성상품화가 되어 외모로 여성을 판단하지만 통일되면 이런 자본주의도 많이 바뀌겠지?

알바할까? 등록금 걱정을 벌써 엄마가 하시는 것 같던데... 정말 북한은 돈 안내고 공부할까? 에이, 답답해. 왜 서로 왕래도 못하게 하는거야? 정말 싫다. 아! 돈돈돈. 미국에서 사은 무기 하나만 나한테 주면 좋겠다. 그걸 다 해체해서 고물상에 넘기면 돈 들어올거 아니야? 그걸로 내 등록금하고, 우리 집 빛 갚고 으~ 음. 인심촌다. 돈 없어 휴학한 애들 준다. 의리가 있으니까. 참 돈이 넘쳐 흐를 테니까 정리해고로 쫓겨난 집에 쫓겨왔다. 수업 끝났다. 집에 가는 길에 컴퓨터 수강증이나 끊어야겠다. 직장은 구해야징.

통일을 향한 힘찬 몸짓

우리는 통일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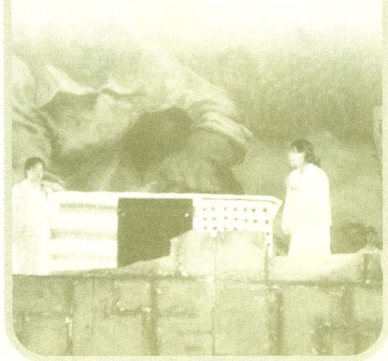
- (1) 통일? 응응, 통일!
- (2) 6·15 공동선언
- (3) 공약 광고, 셋
- (4) 로미오와 줄리엣

통일의 걸림돌

- (1) 안티 조선
- (2) 대나무가 싫어요
- (3) 꺼리꺼리 읽을꺼리
- (4) 시 하나



통일? 응, 통일!



55년간 우리 남북민족은 전쟁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통일 한민족에게 전쟁의 공포는 없습니다. 전쟁의 소리만 들려오면 물건을 사재기 하기 바쁘고, 군대보낸 자식 걱정에 밤을 지새우는 어머니 한두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우리 민족의 공포를 자극하지 않는 날이 결코 멀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생사조차 몰라 애타게 보냈던 통한의 세월이 얼마입니까? 자식 얼굴 한번 만져보고 가겠다고 끝내 눈 감지 못하신 분이 얼마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눈물로 서로를 얼싸안던 모자의 모습을 오누이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분단을 발미로 국민을 우롱하고, 세금을 갇아먹는 악덕 권력자는 나오지 않겠지요? 나와 다른 길을 걷는 자는 모두 빨갱이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세상은 이제 없겠지요? 통일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최많은 주한미군이 우리 앞에 뺨뺨한 고개를 들고 다니는 것이 이제 신물이 납니다. 미군기지앞에 사는 친구는 어두워지면 밖에 나갈 수가 없다는 군요. 통일되면 독극물로 우리 젖줄을 더럽히고, 우리누이 다 죽이는 그런 미군이 이땅을 떠다니 참 살맛나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가운 감옥에 가두어져 고통을 당하는 동지가 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상의 자유도 없는 이런 세상은 이제 없는 것이지요? 막스 베버의 책을 읽었던만 마르크스를 연구한다며 잡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은 이제 없답니다.

밤새 알바하고, 낮에 졸음에 쫓겨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후배가 더 이상 생기지 않을거란 생각을 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노동자 다 죽이고, 농민 땅 갈아엎게 만든 이모든 것이, 그 근본이 없어진다고 하니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경제는 더 이상 남의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통일되면 더 이상 시다발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군요. 그동안 미국의 시다발이로 얼마나 비참하였습니까? 내정간섭도 이제 끝장입니다.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조국을 하나로!



50년이라는 높은 산등성이를 넘고 이제야 쉬어갈 수 있으려나보다. 6·15 공동선언은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통일 방안을 제시해 주었다. 반세기라는 기나긴 세월은 아들을 할아버지로 만들어 놓을 만큼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동안 남과 북의 체제가 서로 다르게 굳어져 버렸기에 이를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체제는 어떠한 사회가 지탱할 수 있는 기본 뼈대가 되기 때문이다.

6·15공동선언은 당신의 체제를 인정한다. 이러한 인정을 바탕으로 우리의 조국을 통일로 이끄는 것이다. 핏줄은 체제를 뛰어넘었고, 믿음은 두 정상

의 하나가 될 소 있도록 해주었다. 이산가족상봉을 보고 눈물 흘리지 않은 자가 어디 있으랴? 노모께 엎드려 절 올리는 늙은 자식을 본 국민은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었다. 몇 십년을 하루 같이 기다려 왔는데, 그 몇시간을 어이못해 세상을 등진 안타까운 소식은 '왜 좀 더 일찍 이루어질 수 없었을까?' 라는 후회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지금은 어떠한가? 미 부시가 당선된 후 세계는 전쟁의 도가니로 변화가고 있으며,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의 머리위로는 미군의 정찰기가 지나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연방연합제로 하루 빨리 다가가야 할 때인 것이다.

1국가 1체제 1정부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목표라면, 연방연합제는 그 과정의 길이다. 계단을 한번에 다섯, 여섯을 뛰어 올라 갈 수 없듯이 통일을 향한 여정도 마찬가지이다. 어느쪽이 상대방에게 자기것의 체제를 강요하지 않고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라는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통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통일세대

알고 싶다 '통일' 우리의 간절한 바람 보고 싶다 친구야!!

'북한' 우리 사회 최대 관심사

반세기 동안 긴장이 끊이지 않던 한반도에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남과 북,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가 이 선언의 관철에 나서고 있습니다.

2000년 2001년 두 해 동안 남과 북, 해외 각계 각층의 만남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며, 서로 양보하고 노력하면 가까운 몇 해안에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정치인, 경제인, 방송인, 종교인, 노동자, 농민, 여성, 학생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그동안 잘 모르던(?) 북한을 알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300만 북한 동포를 알고 또 그 사회의 여러 제도를 알아야 만이 화해도 단합도, 교류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북한관련 학과가 늘어나고 기업과 정치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북한관련 전문가들을 양성?모집하려 하는 것은 이 같은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대적 추세에 맞게 남북 여성교류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북 여성들은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 통일토론회, 8.15 통일행사와 공동보도문 발표를 통해 '범민족적 여성운동'으로 화해와 통일에 기여할 것을 국내외에 발표하여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민족영대 여학우의 북에 대해 '알고 또 서로 교류' 하는 것은 시대적 추세와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도 현안중의 현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에 대해 알고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여하는 것은 민족영대 여학우의 삶과 미래에도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소식지 “통일여성”발간

먼저, 통일과 북에 대해 알기 위해 한 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통일여성”이라는 잡지를 통해 이북여성들의 삶과 사회제도, 노동조건 등 여러 가지 궁금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학우·여성시민모임과 함께해요!

이북여성과 학술교류 함께해요!

통일의 해가 다가옵니다. 통일의 새시대엔 여성·남성이 함께 나란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통일을 향하는 발걸음에 여성이 함께 할 때에야 만이 진정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학우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자주 교류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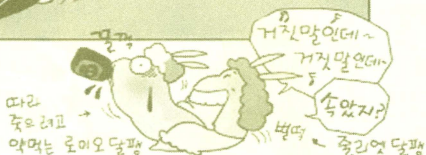
갈팡이의꿈 ...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고 난 뒤에 원수처럼 지내던 두 집안은 서로 화해를 하는데...



누가 뭐래도 우리의 초원은 통일입니다!!!





Anti Anti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일본천황과 일본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신문입니다.

- 천황폐하와 황실가족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충과 의를 다 바치겠습니다

[조선일보 1939. 4. 29]

- 한일합방은 조선의 행복을 위한 조약 [조광(월간조선의 전신) 1940. 10]

일제를 위해 민족의 재산수탈에 앞장섰던 신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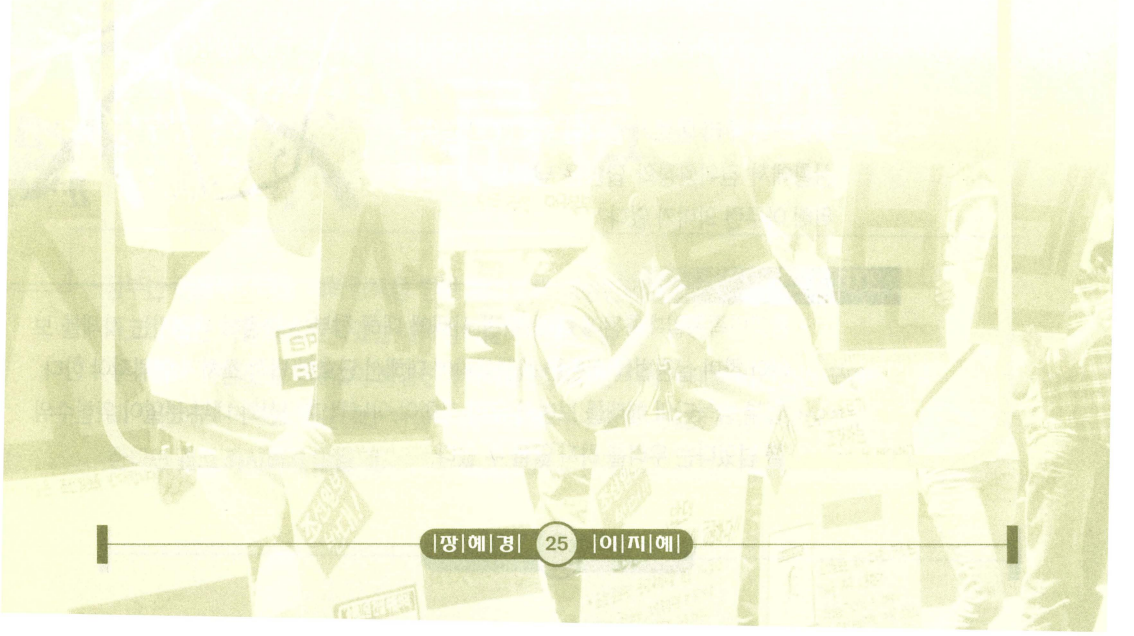
- 조선인들의 국방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조선일보 1937. 7. 19]

- 먹을 것 입을 것을 모두 바치고 그 처분만 바라라 [조광 1941. 2]

징병과 징용을 독려하고 민족혼 말살에 앞장섰던 신문입니다.

- 일본군 입대는 조선인의 의무이자 영광된 일 [조선일보 1938. 6. 15]

- 국어(일본어) 해독자가 적어 황국신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국어(일본어)를 상용해야 한다 [조광 1944. 8]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이회창의 공동선언 역행 발언 대나무가 싫어요!!

2000. 8. 9

- 무분별한 선동적 반미운동과 미군철수 주장이 한미간 안보동맹을 위협하고 있으며 현 정권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조차 일고 있다

2000. 12. 21

- 클린턴 미대통령의 방북을 반대하며
-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위협이 철저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북미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한반도 안정이 크게 손상될 것.
- 대북억지력 유지에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필수적.

2001. 6. 7

- 만에 하나 이 정권이 나라의 주권과 안보를 내주고서라도 북한 비위에 맞춰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구걸하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 지금처럼 우리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위원장의 답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런 의미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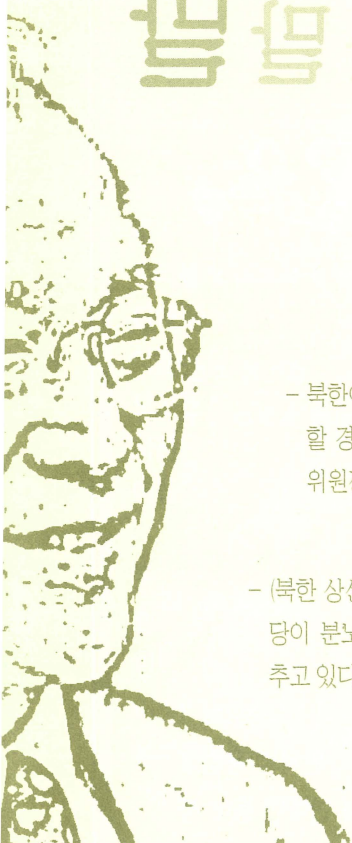
2001. 8. 23

- 평양민족통일대축전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는 분명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실정법을 위반한 좌경세력에 대해선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 일부 방북단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이 이념적 혼란상과 내부 분열이 위협수위를 넘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북북 이회창의 말 말 말



2000. 10. 30

- 남북의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강제적으로 연결하는 '남북연합'이나 '연방제'로는 통일을 이룰 수 없다. (『코리아타임스』기고를 통해)

2001. 2. 27

-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선언을 할 경우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때 한반도 평화선언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반대

2001. 6. 17

-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통과 대처에) 모든 국민과 언론 그리고 야당이 분노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만 잘했다고 춤을 추고 있다.

금금금 이회창의

-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는 바탕위에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
-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없이 좌경친북세력을 보호하면서 이 사태를 비판하는 국민과 야당에게 거꾸로 색깔론을 뒤집어 씌우려 하거나 말장난으로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꺼리꺼리 워를꺼리

산전산후 정책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산전,산후 휴가제도를 법제화하여 놓고 있으며 노동권과 함께 휴식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임산부에게는 법적으로 산전,산후에 걸쳐 150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북한은 지난 1976년에는 산전 35일, 산후 42일 간의 휴가를 주었으나 지난 1993년 1월 [어린이 보육교양법 세칙]을 제정, 임산부에 대한 유급휴가일을 산전 60일, 산후 90일 간으로 늘렸다.

탁아제도

일일탁아소는(공장, 기업소, 농장그리고 각도에 200-300명기준으로 1개소가 운영됨) 유아가 적은 부모가 매일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이용하고 주,월 탁아소는 유아가 많거나 부모가 장기 파견근무때나 연예인 등이 장기적으로 지방공연을 떠날 때 이용한다. 주탁아소는 일주일에 한번씩 유아를 데려오고 월탁아소는 한달간 맡겼다가 데려오는 것을 말한다.

유형은 공장,기업소,농장 작업반 등 직장에 병설된 탁아소와 노동자구, 읍,리,동 등 거주지별로 개설된 탁아소가 있다.



웃기는 세상



학교 밖 골목에서 친구와
김밥먹는 것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일상적인
집에 한 번 다녀오는 것을 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고픈 부모님 얼굴 한 번 볼 수 없어
사진을 보며 이야기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동강난 조국이 싫어서,
혈육의 생사조차 몰라 절규하는
민족이 안타까워서.
이 더러운 세상을 한 번 바꿔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들을
"매국노"라 부르는 매국노가 있습니다.

미군이 우리누이를 짓밟는다고,
미군이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이젠 이땅을 떠나라고 외치는 이들을
차가운 감방으로 밀어대는
법이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농민을 풍구멍이에 밀어넣는
이가 있어 외쳤더니
그들을 탄압합니다.
대선자금 공개하라 외쳤더니
불법몰아 이적단체라 하는
이가 있습니다.

웃긴 세상입니다
조국의 아픔을 함께하는 이는
부모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도
보지 못하였는데
조국을 말아먹는 놈은
잘만 사네요.

웃기 세상

우리의 등대지기 ‘한총련’

언니, 한총련이 뭐예요?

- (1) 등대지기 한총련
- (2) 통일의 꽃 전여대협

대의원대회 우리모두 함께해요.



한총련은 작게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나
학우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돕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일에서부터
크게는 역사의 발전과 나라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일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일을 해왔습니다

백만 청년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온 한총련의 회원이라는 것에 대해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민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김영삼 정권의 실정과 학정들로 인해
계속 무너져 가고 있던 시절, 김영삼정권 조기퇴진을 외쳤던 곳이 바로 한총련입니다.

지난 한총련의 역사속에서
언제나 민족과 학우를 중심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새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결코 역사의 그늘에서가 아니라 정면에서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한총련이 되겠습니다.
한총련은 학우들의 요구를 가슴에 품고, 머리에 새기며 살아갈 것임을 약속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세상이 바뀌어도
100만 청년의 등대지기 “한총련”
민족의 운명과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옳은 길만을 고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한총련 이적규정을 반드시 철회시키고
자주 민주 통일의 그날까지 중심에서 살겠습니다.



전여대협은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의 준말로
전국의 각 대학 총여학생회장님들로
구성된 협의기구입니다.



전여대협은 여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문제로 나서는 봉건적인 낡은 사상과 자본주의의 성차별적 지배논리를 타파하고 여성의 자주적인 힘으로 남녀평등 인간해방이 된 세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50만 여학우의 자주적 대중조직입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의 여성들의 민족해방투쟁을 계승하여 미제를 반대하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며, 역사의 주인공인 청년여학생의 힘과 지혜를 모아 여성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전여대협은 50만 여학우를 대중으로 하는 조직답게 각 지역별, 지구별, 대학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과여학생부나 소모임 과여학생회에 여학우들이 망라되고 이것이 단대 여학생회로 묶여지며 또한 한 대학을 아우르는 총여학생회에 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구별 지역별로 지구여대협, 지역여대협을 만들게 되고 전국조직인 전여대협이 되는 것입니다.

전여대협은 언제나 여학우의 벗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전여대협은 여성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통일이 되어 여성이 손 맞잡고 웃을 수 있는 날까지
끝없는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대의원 대회, 우리 모두 함께해요!

**10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민족 영남대학교에서
9000여학우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8년

수많은 학우들이 학교로 들어오지 못하고, 수색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대구 시내를 뛰어다니며 평화적인 대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총련대의원대회를 100만 학우의 환영과 박수로 진행하여 하였으나, 결국 정권의 탄압으로 대의원대회 자체가 깨어졌다. 끝까지 이루어 내지 못했던 대의원대회를 내년엔 반드시 100만 청년 학도와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대의원 대회가 청년학도의 '축제 장'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총련이 어렵게만 느껴지신다구요? 한총련을 잘 모르시겠다구요?

우리 모두 함께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한총련이 어떠한 곳인지 한번 느껴보도록 해요.

100만 청년이 하나가 되는 장을 직접 접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같이 느껴보고 싶습니다.

양심수 손준혁 학우를 한총련의 대표로 세워낼 수 있는 기회가 빼앗겨 울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총련 일년 사업을 풀어낼 수 있는 자리를 빼앗겨 울던 청년학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대의원 대회를 민족영남대학교의 학우들이 일치 단결된 모습으로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학우가 있는 어느 곳은 어디나 꼼꼼히 체크 체크

여학생 휴게실은 우리가 머무는 곳, 이렇게 하자구요.

현재 여학생휴게실의 단면은 침대, 책상, 소파... 쉬어가기엔 좋네요. 하지만 여성들을 위한, 문화 생활을 위한 배려가 더 있음 좋겠죠!

하나. 정보화 시대 필수품 컴퓨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레포트 과제, 여휴에서 함께 해요.

둘. 여성학 관련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구요? 여학생회로 오세요. 여성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네요.

셋. 파우더 룸의 설치. 나를 위한 아름다움이 화장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죠. 드라이기와 화장대, 앉아서 볼 수 있는 거울을 설치하겠습니다.

넷. 미니 콤팩트와 함께 문화생활을 즐겨봐요.

친구와 함께 문화강좌를 들어보까요?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시간·돈이 없으세요? 너무 멀어 갈 수가 없구요!

하나. 정신대 할머니의 강연을 열겠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망가질 수 밖에 없었던 삶이...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지 되짚어 볼 수 있을겁니다.

둘. 재즈댄스, 호신술, 스포츠 댄스... 나를 즐기고 나를 지켜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한 문화강좌를 하겠습니다. 문화 강좌를 함께 여학우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 작은 문화제. "그녀는 예뻐다"



여성이 외모로 평가받는다든 건 참을 수 없는 슬픔이죠. 가장 멋진 장기로 영대의 최고 여성을 만나는 기회, 장혜경·이지혜가 드리겠습니다.

취업을 향한 권리 주장에 총여학생회가 함께합니다.

실제취업률이 최하인 지금 여학우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불안합니다. 취업분야도 서비스직·일용직·단순노무직에 몰려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학교측의 대응은 한마디로 “네 멋대로 살아라”이다. 여성인력시장의 좁은 것은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일찍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이 본직적 문제에 접근하는 최상의 길임은 분명하나, 학교측의 방관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에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장혜경·이지혜는 여성전용 취업상담원(실)을 꼭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학우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언제나 앞에서 고민하겠습니다.

소 팔아 대학 왔다는 말 아젠 아닙니다.

대학 등록금이 너무나 비쌉니다. 학교가 영리집단인가요? 단지 동결되었다하여 학우의 요구를 받아들인, 진정 학우중심의 학교인가요? 본질적인 해결이 없이는 등록금 인상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측의 예산을 투명화해야 합니다. 교내에서의 우리 몫입니다. 길이 있으나 가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반드시 예산 공개를 통하여 등록금 인상을 저지하겠습니다. 돈 없어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이제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총여학생회 노력하겠습니다.

장혜경 · 이지혜와 함께 하는 사람들

‘우리’ 35대 자주적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추민석 · 임동희**



공 대 자주적 여학생회장 후보 김 혜 영
문 과 대 자주적 여학생회장 후보 손 효 립
야간강좌 자주적 여학생회장 후보 이 미 경



장혜경 · 이지혜 후보와 함께

‘우리의 벗’ 17대 짜주적 총여학생회 건설을 준비하는 사람들